

## “집단적 교섭 구조로 노동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야” 금속노조,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열어... “각자도생 어렵다”



금속노조가 노동시장 분절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산별·초기업 교섭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성식품노조와 함께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산별교섭 진행 과정과 현황을 돌아보고,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는 노사관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업종과 산업을 넘어선 산별·초기업 교섭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금속노조는 지난 20여 년간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제는 이를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때”라고 밝혔다. 이상섭 수석부위원장은 “기업별 노사관계는 불평등과 불안정 노동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 산업 단위 교섭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별·초기업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적용 범위를 꼽았다. 권 교수는 “제도화에 앞서 이미 노사 교섭 관행이 존재했던 서구 유럽과 달리 한국은 법·제도 개입이 필요하다”며 “행정부 직접 개입보다 노동위원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교섭 범위를 정

하는 방식을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산별·초기업 교섭에 응하지 않을 시, 교섭을 만드는 노동쟁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 교수는 “산별·초기업 교섭을 도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법상 용이하지 않다”며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 범위 내에서 노동쟁의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쟁의 대상 범위를 교섭 중 교섭 의제로 한정한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교섭을 하다 합의가 안 되면 쟁의를 하지만, 미국은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하는 쟁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권 교수는 “법 개정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역할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노조 정책국장은 지정 토론에서 “기업별 교섭 중심 구조가 조합원만 보호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라며 “단체 협약을 비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효력확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 오기형 국장은 “기후 위기,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등에 대응하

려면 집단적 교섭구조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벌어지는 격차를 제어할 방법이 없으며 그 피해는 오롯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금속노조는 기후 위기, 인공지능, 고령화 등 복합 위기 시대에 개별 기업 단위의 각자도생 방식으로서는 더 대응할 수 없다고 판

단한다. 산별교섭이 노동자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오기형 국장은 “노동자 모두가 함께 교섭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며 정부에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 “제주 4·3항쟁 정신으로 윤석열 파면, 민주주의 수호”

민주노총, 4·3항쟁 77주년 전국노동자대회 열어 ... 내란세력 청산 투쟁 결의

금속노동자들이 4·3항쟁 77주년을 맞은 제주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을 결의했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제주 관덕정 앞에서 ‘4·3 민주항쟁 77주년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 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서울에서 만난 극우 세력들이 ‘빨갱이는 다 죽여도 된다’ 고 말하는 걸 들었다”라며 “이는 1948년 4월 3일 당시 상황과 다르지 않다” 라고 꼬집었다.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역사가 오늘날 12·3 계엄으로 되살아났

다”라며 “노동자가 4·3 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은 민중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세력들을 단죄하고 척결하는 일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엄중한 정세 속에서 임시대의원대회, 확대간부결의대회, 제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라며 “남은 기간 모든 것을 쏟아 투쟁하자.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척결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혜, 소현숙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화재로 소실된 옥상 공장에서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447일째 고공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혜, 소현숙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두 조합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풀려나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파면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고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한국옵티칼 자본은 고용승계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정혜, 소현숙 조합원은 “고공보다 높은 자본의 벽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 이라며 “제주 4·3 항쟁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하고 민주적인 세상, 노동자와 민중이 존중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 고 외쳤다.